

북 치는 아이

으렁거리는 소리가 길게 울렸다. 한번 문 것은 절대 놓지 않는다는 맹견 핏불 테리어였다. 말려 올라간 입술 밑으로 송곳 같은 이빨이 드러났다. 규환이는 썩썩 소리를 내며 사나운 개를 내게로 몰아댔다. 목줄도 하지 않은 개가 와락 달려들었다. 커다랗게 벌린 입이 지옥 불처럼 빨갛다. 나는 아아악 소리를 지르며 벌떡 일어났다. 꿈이었다.

지독한 꿈에서 막 빠져나온 몸이 바들바들 떨렸다. 무릎을 두 팔로 감싸 안았다. 한줄기 바람이 이마를 스치고 지나갔다. 땀이 식으며 선득했다. 바람? 여긴 어디지.

나는 깜짝 놀라 벌떡 일어났다. 주위는 새까만 이불을 뒤집어씌우기라도 한 듯 캄캄했다.

“...어, 엄마…….”

소리를 죽여 엄마를 불렀다.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선, 선우야.”

떨리는 목소리로 동생을 찾았다. 아무 대답이 없었다.

싸아, 소리가 먼저 나더니 한줄기 바람이 불을 스쳤다. 까만 구름들 사이로 막 고개를 내민 달이 보였다. 어둠이 눈에 익으며 검게 잠겼던 것들이 모습을 드러냈다. 왼쪽에는 기다란 담과 성문이 보이고 바로 눈앞에는 기와로 된 처마가 있었다. 순간 머리카락이 쭈뼛 솟았다. 갑자기 머릿속에서 요란하게 벨이 울렸다. 나는 압정이라도 밝은 듯 펄쩍 뛰어 올랐다. 믿을 수 없었다. 5학년 2반 남자애들 중 최고 겁쟁이인 나 최연우가 이런 곳에 혼자 있다고?

무시무시한 꿈에서 깨어났더니 눈앞에 닥친 현실이 더 꿈같았다. 그것도 악몽이었다.

오늘은 아침부터 기분이 엉망이었다. 아니, 며칠 전부터 그랬다. 규환이 패거리와 모듬이 된 것부터가 문제였다. 어디에도 끼지 못하고 비실대는 나를 규환이가 손가락으로 까딱이며 부를 때부터 속이 울렁거렸다.

‘차라리 아프기라도 했으면.’

밤새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다. 뒤척이다가 간신히 새벽녘에 잠들었는데 어느새 아침이었다. 벌떡 일어나 앉았다가 다시 누우며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어썼다.

“같이 숙제해야 하니까 12시 까지 김밥 열줄 하고 치킨 갖고 객사 앞으로 와라. 안 오면 객사할 줄 알아.”

손으로 제 목을 긁는 시늉을 하던 규환이와 킁킁거리며 웃던 패거리 얼굴이 와락 달려들었다.

“연우야. 김밥 다 썼어. 아빠가 운동가시는 길에 데려다주신대. 얼른 밥부터 먹어.”

엄마는 내가 소풍이라도 가는 줄 아나 보다. 어기적대며 나가보니 소풍 가방에 돗자리와 김밥 도시락을 집어넣고 있었다. 치킨 냄새가 진동을 했다.

“모자랄까봐 넉넉하게 튀겼어. 한창 클 텐데 오죽 잘 먹겠어.”

엄마 목소리가 한껏 들떠 있었다. 누가 목이라도 조르는 듯 숨이 킁 막혔다. 욕실에 뛰어들어 세면대 물부터 틀었다. 싸아, 물줄기가 쏟아져 나와 구멍으로 흘러들어갔다. 따라 들어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싶었다.

아빠는 읍성의 정문 앞에 내려주며 오만 원짜리 지폐를 뒷주머니에 찔러 주었다.

“선우 데리고 엄마랑 할머니네 갔다 올 거야. 저녁 먹고 올 테니까 친구들이랑 맛있는 거 사먹고 와.”

나는 아빠 차가 사라질 때까지 바라보다가 눈을 질끈 감았다. 모래라도 들어간 듯 눈알이 따가웠다.

읍성은 입구부터 사람들로 북적였다. 포졸 옷을 입은 문지기들이 정문을 지키고 서 있었다. 쇠덩어리라도 매단 듯 발이 무거웠다.

문을 지나자 바로 옆 잔디밭에서 함성이 터졌다. 어린 줄광대가 높은 줄 위에서 펄쩍 펄쩍 뛰고 있었다. 하얀 버선발이 구를 때마다 줄이 흔들렸다. 휘청대던 줄광대가 발을 헛디뎠다. 앗, 관중석에서 비명이 터졌다. 줄광대는 가랑이로 줄에 걸치더니 다시 튕겨 올랐다. 부채를 펴 들고는 사뿐사뿐 걸었다. 박수가 쏟아졌다.

나는 가슴을 쓸어내렸다. 줄 위에 선 어린 광대가 꼭 나 같았다. 까마득한 공중에서 한 발 한 발 줄에 내딛는 모습이 어지러웠다. 머리가 핑 돌았다.

저 멀리 객사 앞 잔디밭에 규환이 패거리가 보였다. 굴렁쇠를 굴리는 긴 막대기로 칼싸움을 하고 있었다. 딱딱, 소리가 귀에 날아와 꽃혔다.

“여어! 우리 밥줄 연우가 왔네. 애들아 자리 안 펴고 뭐하냐.”

규환이는 길게 찢어진 눈으로 웃었다. 소름이 오싹 돋았다. 아무리 무섭고 후환이 두렵다고 해도 이곳에 오는 게 아니었다. 이곳은 읍성의 객사 앞 잔디밭이 아니라 맹수의 아가리 속이었다. 목줄이 없었는데도 그런 곳에 끌려온 것이었다.

김밥 열 줄과 치킨을 순식간에 해치운 규환이 패거리는 꺼억 꺾 트림을 하며 잔디밭에 누웠다.

“미안, 연우 걸 안 남겼네. 이를 어찌지?”

규환이는 성재 배 위에 다리를 올리고는 느긋하게 팔베개를 했다.

“우리는 한 숨 잘 테니 연우 너는 숙제 좀 다 해놔. 건물마다 사진도 찍고 설명도 다 적어와. 튀면 알지?”

성재가 가방에서 공책과 연필을 꺼내 집어던졌다.

규환이가 나를 괴롭히기 시작한 건 한달 전 부터다. 급식을 먹으면 빈 식판을 내가 먹고 있는 식판 위에 얹고 가버렸다. 세 번을 참다가 벌떡 일어나 말한 게 화근이었다.

“네, 네가 먹은 건 네, 네가 치워.”

어느새 나타난 성재가 종 주먹을 휘두르며 나직하게 말했다.

“죽을래?”

이글거리는 눈빛에 바늘이라도 들은 듯 눈이 따끔거렸다. 나는 눈을 깜빡이다가 규환이를 쳐다봤다. 검은 눈동자가 유난히 작은 눈이 웃고 있었다. 보기만 해도 힘이 풀리는 눈이었다.

“화내니까 무섭네. 우리 자주 보자!”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아는 데는 얼마 걸리지 않았다. 그날부터 나는 오란다고 오고 가란다고 가는 아이, 밟아도 꿈틀할 줄 모르는 아이가 되어 버렸다. 이유는 딱 한 가지! 만만하게 보였는데 만만하게 굴지 않고 대들었다는 것, 그거였다.

두 시간 여 동안 음성 안을 돌아다니다 보니 얼굴이 뜨겁게 달아올랐다. 마실 물도 없어서 목이 바짝바짝 탔다. 엄마가 싸준 물이 생각나 허겁지겁 객사 앞으로 걸음을 옮겼다.

규환이 패거리는 소나무 그늘 아래에서 시끄럽게 떠들고 있었다. 소나무 가지가 우산처럼 덮고 있는 곳이었다. 나는 생수를 벌컥거리며 휴대폰을 열었다. 전화 온 것을 확인하고 있는데 갑자기 누군가 한 팔로 목을 끌어안았다. 규환이었다.

“오호, 최신기종이네. 충전도 빵빵하고. 이거 데이터 좀 써도 되지? 이따 7시에 동헌 누각에서 만나.”

뜨거운 기운이 가슴 안에서 불끈불끈했다.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는데, 나는 지렁이만도 못한 존재였다. 잔디밭에 털썩 앉아 객사 옆 산등성으로 사라지는 규환이 일행을 낚고 바라보았다. 이제는 집에 먼저 가려고 해도 갈 수가 없는 처지였다.

귀밑머리에서 땀이 솟았다. 정수리도 후끈했다. 일어나서 보니 나도 모르게 뜯어놓은 잔디가 한 움큼이나 되었다.

음성 안을 한 바퀴 두른 길을 한없이 걸었다. 꾸르륵 소리가 길게 울렸다. 규환이 패거리 뺏속에 갇다 바치는 줄도 모르고 정성껏 김밥을 싸올 엄마가 생각이 났다. 배고픈 것조차도 한심스러웠다.

한참을 걷다보니 동헌이었다. 외진 곳이라 그런지 텅 비어 있었다. 계단을 타고 누각에 올라갔다. 난간에 기대어 앉았다. 저 멀리 성벽 너머로 해가 누엿누엿 지고 있었다. 하루 종일 달궂어진 난간이 뜨끈했다.

규환이 패거리가 올 때까지 기다리기로 했다. 온 몸이 힘이 빠지며 나른한 기분이 들었다. 누각 위의 지붕 밑에 낙엽들이 쌓여 있었다. 보기만 해도 폭신해보였다. 가만히

누웠다. 구수한 밤 냄새 같은 낙엽 내음이 밀려왔다.

지붕 끝 하늘에서 하얀 구름들이 몰려왔다. 그러고는 누각 위 나무들을 둘러쌌다. 구름들이 하나로 합쳐지더니 여러 개의 둥근 산이 늘어선 모양으로 바뀌었다. 구름 산이 살구 색으로 물들어갔다. 그 위를 연분홍 양떼구름이 느리게 다가왔다. 그렇게 까무룩 잠이 들었나 보다.

호로로로로로로.

이름 모를 새가 누각 바로 옆 새까만 나뭇가지에서 울었다. 개가 달려들던 악몽이 떠올라 몸서리가 쳐졌다.

나는 황급히 바지와 점퍼 주머니를 뒤졌다. 휴대폰이 없다. 아! 규환이에게 뺏겼지. 다리에 힘이 빠졌다. 전화를 걸 수도, 걸려오는 전화를 받을 수도 없었다.

머릿속이 방전된 휴대폰처럼 멈췄다.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주저앉았다.

똑, 소리가 나더니 스스스스 소리가 울렸다. 금방이라도 뭔가 튀어나올 것 같았다. 심장이 요란하게 뛰기 시작했다. 잠시도 더 있을 수 없었다.

저 멀리 어렵풋하게 성문이 보였다. 50미터쯤은 되어 보였다. 살금살금 계단을 내려와 났다 달렸다. 바닥이 울퉁불퉁해서 고꾸라질 뻔 했다. 생각보다 훨씬 멀었다.

간신히 도착해보니 커다란 문은 닫혀 있었다. 아무리 흔들어도 꿈쩍하지 않았다. 짙짙 짙짙 자물쇠 소리만 기괴하게 울렸다. 목구멍까지 울음이 차올랐다.

기다렸다는 듯 달이 구름 속에서 나와 안내판을 비추었다. 글씨가 희미하게 보였다.

동문 서문 오후 6시, 정문 밤 7시 폐쇄

무릎이 휘청하고 꺾였다. 성문 옆 계단에 올라섰다. 스무 걸음 쯤 오르자 성벽 위였다. 한사람 정도 걸을 수 있는 길이 좁게 이어졌다. 지나는 사람이라도 있으면 불러볼 생각이었다. 도심에서 한 시간 거리에 외떨어진 읍성이다 보니 지나는 차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바람이 달려들었다. 축 늘어졌던 깃발들이 일제히 소리를 지르며 펄럭였다. 깃발 속 노랗고 빨간 용들이 금방이라도 뛰쳐나올 듯 꿈틀댔다.

밑을 보았다. 까마득한 낭떠러지 같았다.

‘뛰어내릴까?’

아까 숙제할 때 적은 게 생각났다. 성벽의 높이는 5미터였다. 다리가 부러지고도 남은 높이였다. 정문으로 가야 했다.

살금살금 성벽에서 내려와 읍성을 남북으로 잇는 주작 대로로 향했다. 정문이 꽤나 멀

리에 검은 절벽처럼 서 있었다. 눈물이 나올 것 같아 주먹으로 두 눈을 문질렀다. 옥사와 우물을 지나쳤다. 죄인들을 고문했다는 옥사에서 울부짖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다. 저 멀리 호야나무가 세차게 흔들거렸다. 흐흐흐, 흐흐흐 바람소리가 귀신이 우는 소리처럼 울렸다.

등줄기에서 시작된 소름이 온 몸으로 퍼져갔다. 가슴이 빠근했다. 규환이 패거리는 누각에 올 생각이 아예 없었던 거다. 그걸 믿은 게 바보 같았다. 어쩌면 성문이 닫히는 시간까지 계산한 게 아닐까? 날 여기에 가두려고?

흐음, 울음덩어리가 북받쳤다. 그 순간 머리 위에서 검은 그림자가 와락 달려들었다. 약 소리를 내며 주저앉았다. 큰 날개를 펼친 독수리 모양의 연이었다. 나무에 걸려 있다가 떨어진 모양이었다.

아빠와 함께 날리던 연이 불쑥 떠올랐다. 아빠는 가오리연 서른 개를 한 줄로 연결해 하늘에 날렸다. 한참 주춤대던 연은 팽 소리를 내고 하늘로 솟구쳐 올랐다. 아빠는 연줄을 풀었다 감고는 다시 길게 풀었다. 연은 어느새 하늘 높이 올라 긴 꼬리를 흔들었다. 음성 하늘을 나는 연중 가장 멋지고 큰 대장 연이었다. 선우와 나는 연을 따라 신나게 달렸었다.

바람이 획 불어오더니 들고 있던 연을 잡아 채 달아났다. 연은 따라오라는 듯 연거푸 날았다 내려앉았다. 원가에 흘린 기분이었다. 너풀거리는 연을 따라갔다. 앞서 가던 연은 획 날아오르더니 정문 2층 누각 뒤로 사라져 버렸다.

멍하니 섰던 나는 달리기 시작했다. 공중에 몸이 붕 뜨더니 그대로 바닥에 나동그라졌다. 무릎도, 손바닥도 까진 듯 했다. 따갑고 옥신거렸다. 비틀거리며 일어나 다시 걸었다. 발목을 접질렸는지 디딜 때마다 아팠다. 발을 질질 끌며 걸었다. 간신히 도착한 정문 역시 굳게 잠겨 있었다. 아랫입술을 깨물었는지 피 맛이 번져났다.

나는 정문 옆 누각을 한참동안 올려다보았다. 가파른 돌계단을 네 발로 엉금엉금 기어 올라갔다. 누각 한가운데에는 큰 북이 우뚝 버티고 있었다. 병마절도사 행렬을 재현하거나 축제를 열 때만 울리던 북이다.

심장이 요란하게 쿵광거렸다. 다리를 절뚝이며 한 발 한 발 다가섰다. 손발이 부들부들 떨렸다.

나는 주먹을 꼭 움켜쥐고 힘껏 북을 치기 시작했다.

‘두웅 두웅 두웅 동 동 동 동.’

큰 북의 울음이 캄캄한 밤하늘을 가르며 퍼져 나갔다. 참았던 눈물이 주르륵 흘렀다. 북소리가 음성 안을 휘 돌아 하늘과 땅을 뚫뚫 울려 댔다. 우렛소리처럼 우르릉 가슴을 울렸다.

‘두웅 두웅 두웅 두웅 동동동.’

큰 북의 울음이 다시 긴 울음을 쏟아 냈다. 뱃속 깊이 오래오래 참았던 서러움이 울음으로 터졌다. 어깨가 들썩이도록 넘쳐흘렀다.

저 멀리 작은 건물에서 노란 불이 켜졌다. 무서운 마음도 조금씩 부서져 내렸다.

‘두웅 두웅 두웅 두웅 두웅 둥둥둥.’

주먹이 아파왔다. 가슴 속을 찬 물로 씻어낸 것처럼 후련해졌다.

저 멀리서 가느다란 불빛이 달려왔다.

“연우야아아아아아!”

북소리 사이로 울음이 섞인 엄마와 아빠의 목소리가 날아왔다. 나는 대답이라도 하듯 주먹에 더욱 힘을 주었다.

‘둥 둥 둥 둥 둥.’

굳게 닫힌 성문의 빗장이 마침내 끼이익 소리를 내며 무겁게 열리고 있었다. (33장)